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프랑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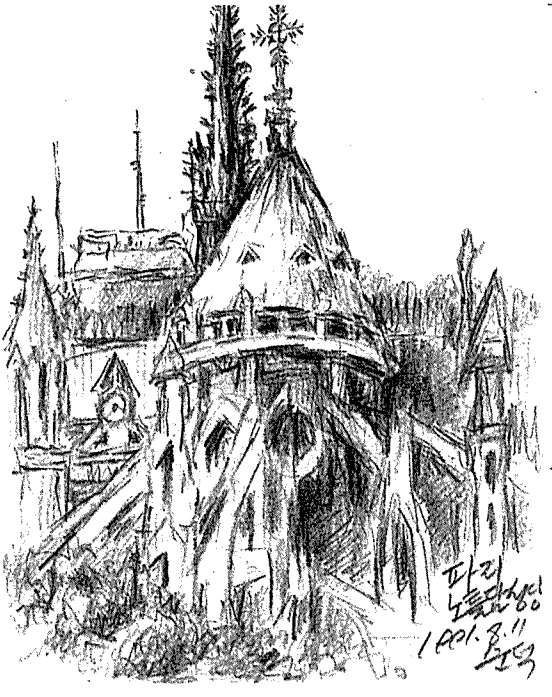
배 순 덕
화가 · 호는창랑

파리의 중심부를 흐르는 세느강의 한복판에는 시테(Cité)섬과 생 루이 섬이 있다. 그 중 파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테섬의 동쪽, 지금의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자리는 그 옛날 고대 로마시대 때 쥬피터 신전이 있던 곳이다.

4C경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자리에 노트르담 성당의 전신인 생 테티엔느라는 성당이 세워졌고 1163년 성당의 개축공사가 시작되어 지금의 노트르담 성당이 완성되기까지 약 이백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에 관한 한 한권의 역사책'과 같은 성당으로,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중세 건축의 가장 완벽한 걸작품이라고도 한다.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있는 앤소니 퀸과 지나로로 부리지다가 주연한 영화 〈노틀담의 곱추〉는 이 노트르담 성당을 배경으로 15세기 파리의 사회상을 폭넓게 노출시켜 우리를 감동시킨 작품이다. 에스메랄다라는 집시소녀에 대한 성당의 종지기인 곱추 카지모도의 순정과 애욕의 갈등을 묘사한 비극적 주제의 이 소설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의 역사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원작을 각색한 것이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당의 외형은 온갖 크고 작은 조각상과 부조로 치장이 되어 있었다. 바르샤바나 베를린 곳곳에서 보아왔던 동상이나 조각에 의한 장식들이 파리의 노트르담에 이르러서는 그 극치를 보이



◀ 노트르담 성당. 중세 건축의 완벽한 걸작품으로 알려진 노트르담 성당은 완성되기까지 2백여년이 걸렸다.

는 듯 했다.

대부분이 붉은 벽돌이나 회색 벽돌로 쌓아 올린 담백하고 무뚝뚝한 외형에, 하늘로 높이 치솟은 첨탑의 끄트머리쯤에 십자가만이 반짝하고 빛이 나는 우리나라의 교회 양식과는 천양지차란 느낌이 들었다.

하긴 천오백여년의 역사에 교회 하나를 짓는데에 걸린 시간이 이백년이나 되는 그네들의 교회 역사와, 이제 겨우 백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교회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교회 건물뿐만이 아닌, 일반 주택가의 창틀이나 베란다 난간의 꾸밈새를 보더라도 장식이 복잡하고 문양이 정교한 것은 분명 역사의 길고 짧음보다는 문화와 국민의식의 차이일 것이다.

에트왈 광장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개선문 역시 갖가지 조각에 의한 장식성을 빼버린다면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로 쌓아 올린 덩치 크고 밋밋한 조형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지금은 프랑스의 정신을 대표하는 신화적인 상징물이 되어버린 이 개선문은 처음에는 이름 그대로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병사들을 찬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 문을 세우도록 명령했던 나폴레옹 자신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죽은 후에야 이 곳을 지나 앵발리드 묘소에 묻힐 수 있었다.

문의 중앙 바로 밑에는 1차 대전때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묘가 있고, 문의 안쪽 벽에는 각 대전에 참가했던 600여명의 장군

66

교회 하나를 짓는데 200년이나 걸렸다는 그네들의 교회역사와 우리나라 교회의 짧은 역사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교회 건물 뿐만이 아닌, 일반 주택가의 창틀이나 베란다 · 난간의 꾸밈새를 보더라도 장식이 복잡하고 문양이 정교한 것은 분명 역사의 길고 짧음 보다는 문화와 국민의식의 차이일 것이다.

99

이름과, 나폴레옹 군대의 승전도가 부조로 새겨져 있다.

여행이나 관광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나 교훈은 단순히 그 나라의 문화유적이나 풍물 뿐만은 아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 한 사람, 지하철 역이나 시장 등지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하나 하나와 그들이 언뜻 내 비치는 언행에서도 그 나라의 인상이 좌우되곤 한다. 특히, 꽉 짜여진 일정에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적은 딴 나라로의 여행은 손님을 맞는 쪽이나 손님으로 가는 여행객이나 서로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제 조국의 인상에 먹칠을 하기 십상이다.

그날 파리 시내의 관람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갔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여종업원의 불친절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었다.

무엇때문에 화가 났는지 손님앞에 나이프와 포크를 광광거리며 내려 놓는다든가 식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빵이 든 바구니를 나꿔채듯이 들고가 버리는 종업원의 태도에 영문도 모른채 당황해야 했던 기억은, 자존심 강하고 예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도 별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껏 선망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그들 국민성에 대한 인식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했다.

내가고친 남은관행 완성되는 경제개혁